

문학공간의 확장도구로서의 U-GIS 개발

Ubiquitous GIS Implementation for Expansion of Literary Space

장은미(쓰리지코어 부설연구소, emchang@3gcore.com)

인터넷 기반의 지리정보시스템의 보급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GIS를 생활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지역 정보와 여행 정보 등의 대부분은 유명관광지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소비적 성향의 자료가 대부분이며, 문화재 또는 교육관련 자료는 일반인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어 생산자 중심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장벽이 존재한다. 과연 인간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간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지리정보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여가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까? 특히 문학 및 예술이 특정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 지리정보가 상하수도 관망과 같은 사회의 인프라로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의 자료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문화적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로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과 종로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와 종로지역에 남아있는 문화관련 공간을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지리정보기술과 접목하여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웹기반의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작가중심, 작품중심, 장소 중심의 지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첫째,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DB구축의 원칙에서 다루어 질 내용이며, 일단 선정된 작가를 중심으로 하여 사용자는 종로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서 작가명을 선택하여 그 작가의 약력 및 주요작품에 대한 설명, 작가에 대한 평가 등을 소개받는다. 작가의 삶의 궤적을 살피기 위해 탄생지 및 10대, 20대, 30대 등의 주요 거주지의 변천을 별도의 그림파일을 통해 제시된다. 물론 종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요활동 무대가 종로의 특정 장소와 연계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장소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여 화살표로 연결된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작가의 삶의 궤적의 범위가 종로에 국한된 경우와 서울지역에 국한된 경우와 한반도에 국한된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 레벨을 일반화하여 정리하였다. 1990년대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후에는 특히 작가들의 해외체류 경험이 많아지고 유학 경험 작가들의 작품이 종로를 넘어 문학작품의 배경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종로지역의 작가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험적 연구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 되므로 레벨을 다원화시킨 것이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5-042-B0026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둘째,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작품중심의 검색에 해당된다. 우선 본 시스템의 문학작품은 소설과 시로 대분되어진다. 장르에 따라 상이한 검색체계를 갖도록 하였는데 우선 소설의 경우, 사용자는 종로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가진 작가를 선택하고 그 중에 종로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선택한다. 작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웹 기반의 지도에 특정 포인트가 찍히면서 별도의 창이 올라오면서 각 지점이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또는 작품 속에 직접 묘사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된다.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간단한 박스 형태로 다 내용이 보여 질 수 있으나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좀 더 상세히 보기 버튼을 통해 많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경이 한 두 개 정도인 소설과는 달리 아리랑과 같이 공간소재가 다원적인 경우는 작품의 스토리에 따른 순서로 제시되고 관심 있는 곳을 모두보기를 통해 종로지역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점을 동시에 띄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시의 경우에는 숫자가 많고 분량이 짧기 때문에 종로를 배경으로 한 모든 작품을 포인트로 화면에 뿌린 후에 마우스가 이동시 화면에 tip으로 작가와 작품명이 나타나도록 하며 클릭시 인용된 시구가 나타나며, 출처와 기타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시비와 문학관 등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학공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목록 중에서 관심 있는 곳을 선택하여 그 곳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동시에 사진과 관련된 작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찾아갈 수 있는 hyperlink 형태의 검색을 구현하였다. 그 당시의 사진 또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현존하는 문학공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상은 인터넷 GIS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능요소를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나 차별적인 것은 이동하면서 동일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환경하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종로지역 인사동 및 기타 주요지점을 이동하면서 바로 확인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비쿼터스 공간은 사이버상의 공간과 실제공간이 중첩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술적 측면의 변화만 이루어지면 U-GIS가 이루어지는가? 센서만 여기저기 설치한다고 하여 데이터가 생성되고 자료가 공유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인터넷을 넘어 유비쿼터스 환경하여 지리정보가 구성이 될 경우에 지리학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생활공간에 근거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틀과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실제공간화는 작가의 작품에 배경이 된 과거의 한 시점의 공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재의 일반인 또는 그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이버 상의 작가와 작품의 공간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인간 중심적인 유비쿼터스 공간의 활용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정 작가만의 문학작품 또는 드라마로 인하여 장소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발굴하여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특정작가에만 의존하는 왜곡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유명작가가 아닐지라도 특정 공간을 표현한 작품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장소의 방문시 보다 다원화된 정보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와 모바일 지리정보의 차이점은 마이크로 칩과 바코드와 같은 센서를 실제적 공간에 설치하여 서버를 통하지 않고 향상된 현실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종이지도와 단말기의 진화라는 기술적 진보에 지리학자들은 이제 단순한 도로와 건물 그리고 음식점 및 숙소 정보 중심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책꽂이에 흩어져 있는 문학공간을 살려내어 사이버공간으로 다시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착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